

한국교회의 대(對)사회 이미지와 신뢰성 실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미지 제고(提高) 및 교회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방안

2009년 6월

노영상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외문화,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기
실
Christian
Ethos
Movement





C O N T E N T S

제 I 부

1. 글머리에	4
1) 이 글의 목적	
2)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이미지의 중요성	
2. 교회에 대한 칭송과 미움	7
3. 기독교 안티사이트들의 비판에 대한 고찰	9
1) 기독교의 모순과 함정	
2) 위험한 악서, 성경	
3) 기독교 범죄	
4) 기독교 뉴스	
5) 탈레반 사건(2007) 정리	
6)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4.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 실추의 원인분석	13
1)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	
2) 위 표에 대한 설명	
5.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및 교인들에 갖는 부정적 이미지 분석	16
1) 광신도 이미지	
2) 십자군(Crusade) 이미지	
3) 초당 이미지	
4) 개독교 이미지	
5) 짝퉁 이미지	

제II부

6.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교회의 방안들 19

- 1)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원들에 대한 분석을 정리함
- 2)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

7.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고양하여

새로운 교회 이미지를 형성함 20

- 1) 위장된 이미지와 진정한 이미지
- 2) 진정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 3)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
 - (1) 목회자 이미지의 제고
 - (2) 신자 이미지 제고
 - (3) 선교방식 이미지 제고
 - (4)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미지
 - (5) 교회 이미지 제고
- 4) 요약정리: 핵심 이미지로서의 십자가 이미지

제III부

8.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회와 신자의 임파워먼트 전략 29

- 1) 교회의 임파워먼트 전략
- 2) 사랑의 역량강화 전략
- 3) 사랑의 역량강화와 기독교 영성
- 4) 영성훈련을 통한 교회의 역량강화
- 5) 영성훈련의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예배
- 6) 예배와 교회생활을 통해 성취되는 교회의 역량강화
- 7) 마치는 글

제 1 부

1. 글머리에

1) 이 글의 목적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동시 한국교회는 정체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 상황을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토론들이 많았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고양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개신교의 이미지 실추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회 이미지를 창출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김만기 교수는 그의 책, 『이미지 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지를, "어떤 대상체(objects referent)가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인각해 놓은 자국(impression)"이라고 정의했다.¹⁾ 예를 들어 우리는 달이라는 외부의 물체적 이미지(icon)를 보고, 동경하는 임의 얼굴로서의 마음의 이미지(심상, mental image)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의 내부적 이미지가 본 글의 관심이 되는 이미지이다.²⁾ 그와 같은 이미지는 언어적 개념(concept)보다 힘이 있지만, 그 같은 언어적 개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보적인 위치에 있다. 언어적 개념으로 종교적 신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지만, 은유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비적 실재(reality)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³⁾

샤넬이나 루이비통, 아르마니 등의 명품 가방이나 신발의 짝퉁은 1-20만원이면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진품은 그 가격의 수십 배가 된다. 짝퉁이라고 하여 진품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도 짝퉁을 구별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 명품의 가격은 그것의 브랜드 파워에 많이 의존한다. 물론 다른 상품보다 디자인과 질에 있어 우수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가격의 대부분은 브랜드 인지도가 결정하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여 1위를 한 코카콜라는 브랜드 가치만 696억 달러이며, 34위를 한 삼성은 83억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⁴⁾ 이미지를 팔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종교를 상품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한국 종교 중에서 개신교의 이미지 파워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 전 기윤실의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다.⁵⁾ 이 설문문의 다섯 번째 질문은 개신교와 가톨릭과 불교의 신뢰도에 관한 조사였는데, 그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기관으로 가톨릭이 35.2%, 불교가 31.1%, 개신교가 18%, 무응답 15.7%의 순으로 응답된 바 있다. 특히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자들 469명 중, 개신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자는 7.6%에 지나지 않았다. 가톨릭은 37.9%, 불교는 29.0%였다. 또한 본 설문문의 일곱 번째 질문은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항에서도 개신교는 최하위였다. 불교 31.5%, 가톨릭

1) 김만기, 『이미지 문화 커뮤니케이션: 현실의 체계 해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15.

2) 안석모, 『이야기 목회, 이미지 영상: 해석학적 목회론』 (서울: 도서출판목회상담, 2001), 135-136.

3)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Images of Christia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21-23.

4) 김영한, 임희정,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서울: 기획 책아책아, 2006), 81.

5) <http://trustchurch.net/> 기윤실,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2008년 11월 20일, 명동 청어람 3실), 31.

29.8%, 개신교 20.6%의 순으로 집계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설문 결과의 결과는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 파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개신교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이미지의 중요성

현재 한국개신교는 지난날의 성장세를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개신교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의 변화는 물론, 21세기의 한국의 상황은 오늘의 개신교가 새로운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포스트모던한 문화, 생명 및 생태의 위기, 뉴미디어로서의 멀티미디어 환경, 세계화의 가속화,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정치경제 구조를 찾아내려는 시도들, 컴퓨터 물리학 생명공학이 비약적인 발전, 과학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영성에 대한 갈구, 각 분야에서 드러나는 민주화의 거센 목소리 등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전의 모습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기업들은 마누라만 빼놓고는 모두 바꾸어야 한다는 말들을 하며 변화에 대해 역동적인 반면, 한국교회는 이전의 목회방식만을 고집하며 변화의 뒷전으로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그의 책, 『영성과 감성을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에서 21세기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특성들을 분석한 후, 그러한 사회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스윗은 그 방법을 ‘an EPIC Church’란 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An EPIC Church’는 영어 ‘an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and Connected Church’의 약어이다. 경험적, 참여적, 이미지가 이끄는 그리고 연결된 교회를 의미한다.⁶⁾ 이 책은 오늘의 포스트모던한 사회를 이성과 함께 감성을, 교리보다는 경험을, 그리고 참여성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동체성 및 ‘이미지’와 메타포를 강조하는 사회로 진단한다.⁷⁾

스윗은 이 같은 포스트모던한 현대사회에서 상당한 적응력을 보인 집단으로서 기업들을 거론하였다. 특히 세계의 기업 중 이러한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 그는 스타벅스를 소개한다.⁸⁾ 스타벅스는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와 공동체성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장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복음의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콘텍스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효과적인 복음전달이 가능함을 그는 강조한다. 그는 특히 포스트모던 문화 시대의 교회는 이미지를 강조해야 함을 말한다. 근대 세계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비나 은유 등을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배제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이야기와 은유, 상징 및 이미지나 그림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하는 사회로, 의미의 여분을 갖는 감성적 이미지가 지성적 언어만큼이나 중시 되는 때인 것이다.⁹⁾

6)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0), 22-23.

7) 이러한 포스트모던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다루는 운동을 현재 미국에서는 보통 ‘이머징 교회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이라 부른다. 이 중의 대표되는 신학자로 드루대학교의 스윗(Leonard Sweet)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오늘의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들을 분석한 후, 이런 세계 속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EPIC 교회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접근에서 두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한 포스트모던한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달리 구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그렇게 할 경우 포스트모던한 성격이 신학적 모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에 있어 필자는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 보며, 그러한 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제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파괴적이며 제거적인 포스트모더니즘(eliminative postmodernism)에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8) 레너드 스윗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참조.

오늘의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시대는 동시 멀티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뉴 미디어로서의 멀티미디어가 갖는 첫 번째의 특징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영상화(visualization)이다. 디지털 방식으로서의 변환은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문자, 그래픽,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컴퓨터로 디지털화 하여 이들을 동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합성하는 통합성(integration)을 갖는다. 종래에는 문자, 음성, 영상이 각기 다른 전용장치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도입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기기로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 전송할 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성(interactivity)과 비동시성(asynchronicity)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수집에서 탈피한다는 의미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¹⁰⁾ 멀티미디어 시대의 환경의 특징을 우리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영상화(visualization), 통합성(integration), 쌍방향성(interactivity), 비동시화(asynchronicity) 등의 개념으로 다시 요약할 수 있겠다.¹¹⁾ 이러한 특징 중 멀티미디어의 영상화의 측면을 다시 부각하고자 한다. 오늘의 멀티미디어 시대는 '문자'의 시대라기보다는 '이미지'의 시대인 것이다. 이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엔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은유나 상징으로서의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표현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안석모 교수는 이미지는 자기를 바꿀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하였다.¹²⁾ 이미지를 바꾸는 자는 세계를 바꾼다. 이미지를 창출하는 사람은 권력을 점유하게 된다. 이미지는 많은 파워를 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같은 이미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많은 이미지와 은유들을 사용하신 바 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제시하신다.¹³⁾ 겨자씨와 누룩 이미지, 잔치 이미지, 파종 이미지, 가라지 이미지, 보화 이미지 등 하나님의 나라를 일종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이와 같은 우리 속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의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부모에 대한 이미지, 자연에 대한 이미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 종말에 대한 이미지 등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파워를 보여준다.¹⁴⁾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image)이니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이며, 우리 신자 또한 그의 이미지를 좇는 자인 것이다.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이미지는 단 기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홍보도 해야 하는 바, 오늘의 시대에 있어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있어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실추된 개신교의 지난 이미지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제안하려 한다. 본 논문이 한국 개신교 이미지 제고에 약간의 유익이 되길 기대한다.

9) 레너드 스윗, 『영상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33.

10) 강대인, "멀티미디어 시대의 사회변화,"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회』 (서울:대한성서공회,1995), 45-46.

11) 전석호, 『정보사회론』, 개정판 (서울: 나남출판, 1996), 237.

12) 안석모, 『이야기 목회, 이미지 영상: 해석학적 목회론』, 153.

13) 마태복음 13장.

14)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많은 근원적 이미지(primordial image)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다.

2. 교회에 대한 칭송과 미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¹⁵⁾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7).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¹⁶⁾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12).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9).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누가복음 6:26).

위에 네 개의 성경 말씀을 언급하였다. 앞의 두 개 구절들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성구이고, 뒤의 두 구절들은 신자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바, 칭송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제시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신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그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음으로 교회의 역동성을 가져오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두 말씀들은 그러한 기독교인의 시도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다. 어차피 신자는 세상과 상대되어 있는 존재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받기 어려움을 두 본문들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두움에 처해 있음을 고발함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을 통해 그들이 처한 어두움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과의 분쟁을 선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누가복음 12:51).

하지만 전반의 두 본문은 우리에게 앞과는 다른 전도전략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곧 세상으로부터의 칭송을 통해 주님을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언급한 세상과 분쟁을 야기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 같이 이율배반적인 두 종류의 본문들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갈래의 본문들 앞에서 우리는 당혹하게 된다.

위의 베드로전서 2:12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좋은 행실이 오히려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행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말한다. 기독교인에게 선한 뜻의 행동임에도, 그것을 비신자들은 나쁜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진정한 선한 행동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어렵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15) 이 본문 중의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은 호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16)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이란 말은 방문하신다는(visitation) 뜻으로, 그리스도의 재림(his coming)의 날을 의미한다.

행동에 대한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의 오해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러한 오해는 주님의 재림 시의 심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을 그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만 그들이 이러한 판단이 오해임을 깨닫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감의 이미지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교회는 세상에 호감을 주기 위해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제시하는 이미지는 그들의 어두움에 대해 심판을 알리는 빛의 방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택하신 잠재적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복음전파와 신자들의 행실에 따른 빛의 메시지를 접하고, 그들이 이전 삶이 어두움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이전의 문제적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대한 호감을 표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의 전환을 예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세상이 주장하는 원칙과 다른 것으로 언제나 갈등의 여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서로 상이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화해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 같은 기독교인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기독교의 메시지 속에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을 향한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세상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위 본문은 말하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한 이중성 메시지를 갖게 된다. 하나는 세상이 용납하기 어려운 메시지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메시지이다. 교회는 이 같은 양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교에 임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일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구원과 화해를 선포하는 전령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가지는 이미지에 이런 양면성이 담길 수밖에 없을 인지하게 된다. 기독교의 세상 앞의 이미지는 동전과 같다. 동전의 앞면에는 화해의 이미지가 동전의 뒷면에는 심판의 이미지가 동시에 새겨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세상과 구별된 자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 신자들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자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럽고 악한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림이 없이 이 세상을 주님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9). 이와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 사이에서의 긴장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인 순례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 작업의 문제를 다룰 때, 다음의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이미지 작업은 복음의 본질에 착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는 것에 우선성을 두어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이미지 작업을 하며 그 일을 통해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세상과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이미지의 개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7) 정훈택, "예수님이 요청하신 교회 이미지," 『목회와 신학』 (1997. 10.), 50.

3. 기독교 안티사이트들의 비판에 대한 고찰

2006년 "5월 25일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2005년 11월 1일 현재 종교인은 24,97만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이며 1995년에 비하여 2.4% 증가했다고 하였다. 불교가 3.9%(405,000명) 증가해 22.8%이고 천주교는 무려 74.4%(2,195,000명)로 증가하여 10.9%에 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1.9%(14만4,000명)가 줄어들었다. 1995년에 876만 명(19.7%)이었는데 2005년에 861만6천 명이라고 했다. 10년간 기독교인만이 소폭 줄어들었다."¹⁸⁾ 이 통계가 보여주는 대로 개신교는 정체기를 넘어서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며, 이에 비해 가톨릭은 성장에 있어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가톨릭의 교인수가 개신교의 교인수를 능가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말 그대로 한국개신교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신교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고수에 따른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보다 못한 윤리성 등에서 야기된 사회의 지탄이다. 웹상의 안티기독교 사이트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실려 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은 이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같은 비판의 내용들을 간추려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웹상의 안티기독교¹⁹⁾ 사이트들을 점검하면 된다. 유명한 안티기독교 사이트들이 있는데, 클럽안티기독교(<http://cafe.daum.net/clubanti>),²⁰⁾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http://www.antichrist.or.kr/>),²¹⁾ 안티기독교(<http://www.anti1.kr/>) 등이다. 아래에선 주로 안티기독교의 입장을 살펴보았다.²²⁾

안티기독교(<http://www.anti1.kr/>) 사이트는 오늘의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검토한다. 1) 기독교의 모순과 함정 2) 위험한 약서, 성경 3) 기독교 범죄 4) 기독교 뉴스 5) 탈레반 사건 정리(2007) 6) 사진으로 보는 기독교 7)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등이다. 그 외 이 사이트는 자유게시판과 안티기독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18)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6> 「기독교신문」 2006년 6월 13일자 신문에서 발췌. 2002년 말 현재 기독교(개신교)는 1700여개의 교단이 된다. 그리고 교회 수는 6만7800여개에 이르고 성직자는 12만 4310여 명으로 나타나 있다.
 19) 안티기독교 또는 반기독교주의(反基督教主義, 반기독교, 개독교)란 기독교 신자들을 비판하는 문화 현상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반기독교주의자, 대한민국의 기독교, 예수를 비판하는 측은 스스로를 안티기독교(약칭 안기)로 부르며 1990년 이전부터 활동하다가 1993년 이후 PC 통신, 1996년부터 인터넷 등에서 활동했다("반기독교주의," 위키백과).
 20) 2006년 개설된 사이트로 현재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1) 안티기독교 사이트 중 이 사이트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기타 주요한 안티기독교 사이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www.antichrist.or.kr), 종교비판자유실현연대(<http://www.gigabon.com/>), 종추련(<http://blog.daum.net/shfluid>), 클럽안티기독교(大圓壺 <http://cafe.daum.net/clubanti>), 기독교비평(<http://cafe.daum.net/chiwoo>), 무신론자가 만든 카페. 냉정하게 보는 기독교의 현실, 안티예수(<http://www.antiyesu.net/>), 안티기독교(개이버 <http://cafe.naver.com/antichristianity>), 안티바이블(<http://cafe.daum.net/antidogma>), 개종(<http://cafe.daum.net/AdConversion>) 등의 사이트를 분석하는 것은 안티기독교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0071>).

1) 기독교의 모순과 함정

먼저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지적한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죽어갔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여호와(하나님)가, 기독교의 주장대로 모든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절대 신이라면,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믿음의 기회가 공평해지거든요.... 현재 자신들만의 신이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모두 거짓이라서 믿어봤자 하나같이 지옥이라는 종교는 기독교 계열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천도교... 등등 다른 종교는 기독교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타종교에게도 행동에 따라 구원, 영생, 좋은 환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오로지 기독교 계열만이 자신들의 신을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는 먼저 믿음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자가당착적 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였을 때, 교회에 안 다니면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말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겐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말임에 틀림없다. 최근 불신자에게 열린 교회(open church)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unbeliever)라고 부르기도 하는, '예비 기독교인'(prechristian)이나 '구도자'(seeker)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우리의 시야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한 배려의 정신은 오늘의 기독교의 선교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최근 장신대에서도 특장을 하였던 풀러신학교의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총장은 지옥이란 교리가 그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일면 거슬리는 교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가 믿는 바에 솔직하여야 함을 말하며, 지옥에 대한 교리를 수용한다고 언급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세가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우리는 천진난만한 기독교의 승리주의(triumphalism)에 도취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승리주의는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존경심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하시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저주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창조세계의 고통과 깨진 실상에 더욱 민감해야 함을 그는 강조하였다.²⁴⁾

2) 위험한 악서, 성경

"여호와 가라사대 네 동포,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너를 찢어 이르길 네 열조(조상)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다른)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공홀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는 네 신(神) 여호와에게서 너를 찢어 떠나게 하려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13:6-11)."

이 사이트는 위와 같은 신명기 13:6-11 등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경이 인간에 대한 어떤 온정도 없는 악한 책이라고 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神)을 섬기자고 찢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부모 형제, 처, 자식

23)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홍범룡 역 (서울: IVP, 2004), 151.

24)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176.

또는 친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지도, 숨기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 여호와의 지엄한 명령이고 기독교의 뜻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비판은 성경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연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기독교 범죄

이 부분은 기독교인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한 가지의 예로 다음의 글을 소개하였다.

"홍익문화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만 밝혀진 단군상 훼손사례가 70여 건에 이르고 밝혔습니다. 단군상 훼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된 기독교 목사들도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단군상 훼손의 사건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단군상 훼손의 사건들이 소수 기독교 광신도들의 행동이 아니라, 소속교인만 800 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대표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자행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주위만 둘러봐도 이런 종류의 상황들을 기독교인들로 인해 실제로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4) 기독교 뉴스

이 '기독교 뉴스'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의 간통 및 성추행 사건의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성추행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진 바 있다. 아래에 성추행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목회자의 일례를 소개하였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있던 10대 어린이와 지적장애인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 이 모 씨(5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이 씨의 부인 서 모 씨(53)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 폭행)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²⁵⁾

5) 탈레반 사건(2007) 정리

탈레반 피랍 사건에 대한 비판이다. 안티기독교인들은 탈레반 사건을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만약, 당신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기독교 신자로 살아 왔는데, 어느 날 스님 무리 몇 명이 와서는 기독교 믿지 말고 부처를 믿으세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강요하면서 당신을 따라다니며 불경을 외워대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선교활동을 중단하라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 "절대 선교활동이 아닌 봉사활동이 목적이다,"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며 네티즌에게 정면 대응하고, 오히려 네티즌을 꾸짖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는 결국 탈레반에서 선교활동을 한 동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났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25) 「뉴시스」, 2008년 6월 17일.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 도중 일어난 탈레반 사건 이후 선교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2일 '단기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열면서 목회자 300명과 선교 경험이나 관심이 있는 개신교인 160명 등 460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해 한국 교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목회자의 93.2%, 신자의 90%가 수긍했다. 또 아프간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 일부가 교회를 향해 거칠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목회자들은 '매우 타당하다'(11.1%)거나 '어느 정도 타당하다'(54.1%)는 쪽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21.3%)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다. 신자들도 같은 질문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6.25%)와 '어느 정도 타당하다'(61.25%)는 대답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15%)는 답보다 4 배 이상 많았다. 또 한국의 해외 선교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목회자들도 '매우 그렇다'(5.2%)와 '어느 정도 그렇다'(46.3%)는 쪽이 '전혀 그렇지 않다'(22.4%)는 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신자들도 '매우 그렇다'(9.4%)와 "어느 정도 그렇다(50.6%)가 '전혀 그렇지 않다'(11.25%)는 답보다 훨씬 많았다."²⁶⁾

이상과 같이 탈레반 피랍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하였던지 간에, 그 사건에 따라 나온 의견들 중 자성적인 견해가 더 우세하였던 것 같다. 개신교의 강요적이며 공격적인 선교는 반성의 차원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자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 선교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선교적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민한 판단이 요청되는 것이다.

6)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이 부분에선 '개독질환'이란 제하에서 기독교의 강요적이며 협박적 선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 기독교의 무분별한 선교와 전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래에 카페 '안티기독교'에 실린 글 하나를 소개한다.²⁷⁾

"초 6때 동네교회의 이줌마들의 끈질긴 강요에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초딩 때 교회 앞에서 과자 주고, 전번 주소 적으라고 해서 적은 게 불씨였습니다. 귀찮아서 가지 않으면 그 날 집 전화는 코드를 뽑아놔야 됩니다. 가끔씩은 직접 찾아옵니다....."

교회성장연구소의 홍영기 소장은 "개신교는 강요하는 종교? 흥미 없는 종교?"에서 다음의 말로 개신교의 강요하는 선교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²⁸⁾

"이 연구는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교회의 전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강요당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전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게 부각되는 것은 개신교의 강요하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개인 생활의 존중과 종교적인 관심의 저하에 따른 경향으로 비춰진다. 불신자들이 전도 받을 때도 긍정적 느낌(14%)보다는 부정적 느낌(36%)이 많았으며,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에는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감으로 개신교를 선호하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불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한겨레」, 2008년 12월 16일자 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327995.html>).

27) <http://cafe.daum.net/AntiChristianity> '기독교체험담' 속의 글.

28) <http://christiantoday.co.kr/view.htm?code=pd&id=153713>

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강요하는 종교, 통제가 많은 종교, 흥미 없는 종교로서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요에 대한 반감, 불신자의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은 한국 교회가 이미지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개인존중이 배려되는 전도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접하는 불신자들은 이미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전도방법 중에서 강요적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방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안티사이트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80%를 넘는 비개신교도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한다. 이에 있어 이 사이트들은 일부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가톨릭은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가톨릭을 개신교와 차별화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세상을 등진 과거인들은 양심의 행사 정도에 따라서 여호와가 심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예정설(豫定說) 내지는 소명설(召命說)에 의해서 예수를 몰랐다는 자체가 신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교리해석을 내립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안티사이트들이 비판의 범주에서 가톨릭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개신교와 함께 가톨릭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불교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종교들의 부패와 문제를 고발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4.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 실추의 원인분석

1)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

위와 같은 안티사이트의 내용에서와 같이, 오늘의 한국개신교는 사회 일각에서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을 다음의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는 실제의 한국교회의 잘못된 견해와 행동에 의해 야기된 원인들이며, 다음은 빛의 자녀에 대한 어두움의 자녀들의 미움에서 야기되는 원인들이다.

<표1>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

1. 실제의 한국교회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 의해 야기된 원인들		2.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 밖 사람들의 미움에서 야기된 원인들	
1) 목회자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			
목회자들의 욕심과 타락: 성추행, 공금횡령, 사치 등의 부도덕한 행동	대형교회의 목회세습 문제에 대한 논란(교회의 사유화)	목회자들의 부당한 권위주의	
목회자의 교역자로서 자질 문제	일반적인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성직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	
지나치게 교계정치와 일반정치에 몰입해 있는 목회자들의 문제	이전 민주화 운동 및 사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목회자들의 변질	총회 등의 선거에서의 타락상	

2) 신자들의 삶에서 야기된 문제			
기독교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고위직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및 사회관의 문제	치유 및 기복신앙 등에 몰두하는 신자들의 종교에 대한 천박한 개념	직장에서 같이 술자리도 안 하는 등의 고고한 체시는 신자들의 삶에 대한 거부감
신자들의 부도덕한 생활 (도덕성의 문제)	신자들의 광신도 이미지	신자들의 언행 불일치(이중성)에 따른 신뢰성 상실	
3) 선교방식에서 야기된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와 같은 공격적 선교의 문제(기타 해외선교에서의 몰지각한 양태들)	개척교회들의 열악한 환경(한 상가건물에도 많은 교회 난립)	기독교인들에 의한 단군왕검상과 불상들의 파괴	비기독교인을 멸망의 자녀들로 보는 입장
강압적인 선교의 하나로 미션스쿨에서의 성경과목	번잡한 지하철 등에서의 무리한 노방전도	경품을 거는 전도방식	
4) 기독교인의 교리적 태도에서 야기된 문제			
타종교에 대해 관용하지 못하는 정복적인 자세(단군상 훼손 등)	조상제사 문제에 대한 논란(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한다는 비판)	일부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신비주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교리에 대한 교회 밖 사람들의 불만(공평성의 문제)
지나친 미래적 종말론에서 오는 파장들(다미선교회 등)	신유의 은사에 대한 거짓된 강조	교회의 반지성주의-교회 밖과의 소통의 어려움	
5)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서 야기된 문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불의한 역대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	교회가 사회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문제	교회청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	반민족적인 교회로 비판 ²⁹⁾ (선교국가인 미국에 종속, 단군상 파괴,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와 야합) ³⁰⁾
교회의 대사회봉사의 취약성과 순수성의 문제(공동체성의 문제)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 투여하는 재정의 취약성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기독교인 출마자에게 표를 주는 교인들의 성향에 대한 불만	
교회의 장소들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교회주차장 개방의 문제)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	사회문제에 대해 말할 때의 교회의 나이브한 주장들	
기독교정당의 문제			
6) 교회운영 및 기타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들			
개교회주의에 따른 교회들 사이의 과당경쟁	양적 팽창주의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교회 행정체계	사회의 엘리트 계층과 중산층에 상대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많은 것의 문제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교회의 몰량주의와 금권만능주의 등의 세속화(교회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	헌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강조	기독교의 힘에 대한 견제와 반발
기독교 이단들에서 오는 문제	기도원에서 야기된 문제들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기독교의 영성	음주 흡연에 대한 반대
교파분열(교회분쟁)과 군소신학교의 난립	교회의 직분을 헌금과 연관하여 정함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 문제	

2) 위 표에 대한 설명

이상과 같이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 원인들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분석한 결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나 교인들의 행위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고 보다는, 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비윤리성과 무례함에서 야기되는 것들을 알았다. 이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교인들의 삶이 더 도덕적인 데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다 더 타락한 것 같은 모습들에서 야기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으며,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사탄의 조종에 의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비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비판에 자신을 겸허한 자세로 비취볼 필요도 있다.

이에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의 윤리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한 종교적 무례함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더 조심스런 선교전략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 보다 윤리적인 사람들로 양육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개신교회에 대한 비판들은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이긴 하지만, 일부의 비판들은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개신교에 대한 오해에서 야기된 것들도 없지 않다. 개신교 안티세력들은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비관용적인 측면이 농후하다.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교리 및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서, 그 종교 내부에 들어와 교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시야에서 개신교의 신앙을 진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티기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29) 반민족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은 그 뿌리가 깊은 바, 그 비판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고자 한다.: 초기 한국을 선교한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적이며 교파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로써, 사회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녔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사회변혁에 별 공헌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일제하에서 많은 독립운동에 기독교인이 개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 변절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해방 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 정통성이 약한 엘리트층이 정치권을 점차적으로 장악함에 따라, 그들은 토착적 종교들을 강화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성 속에서 개신교에 대한 지지를 노골화하였다. 특히 건국 초기의 이승만 정권은 개신교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이것이 당근이 되어 한국교회는 권위주의적 정부와 아합하는 형태를 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60년 대 후에도 일부 기독교 세력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민주화 운동을 옹공적이며 반미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비난한 바 있다. (강인철,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 1945-1960" 참조)

이러한 과거 개신교에 대한 비판은 일면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숙고하여야 하며,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치세력 및 사회세력과 아합함을 통해 손쉬운 선교와 교세확장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교인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자세가 요청된다. 아울러 보다 성숙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미래의 한국 개신교를 위해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식민주의 하에서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과연 불교와 유교와 가톨릭 등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다. 당시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개신교 신자들이 그 어려운 시절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전후 전쟁고아들과 헐벗은 국민들을 구할 때, 다른 종교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다시 질문해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개신교가 충분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신교 밖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민족을 위해 더 많이 일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는 경쟁적 발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과연 개신교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 정당하냐는 질문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0) 강인철,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 1945-1960,"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5.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및 교인들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 이미지 분석

2007년 "서울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마케팅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조사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나고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김치'라는 대답이 20.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³¹⁾ 한국하면 김치라는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신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개신교에 대한 여러 지배적인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들 중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 생각된다. 안티기독교인들의 마음엔 한국의 개신교가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반성하며, 개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광신도 이미지

먼저 광신도 이미지이다. 요즈음의 개신교는 개신교 밖의 사람들에게 광신적인 사교집단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 교회의 문턱을 처음 넘는 사람들에게겐,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온 회중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당혹스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을 찾는 열렬한 기도이지만, 그러한 기도가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색한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박수를 치며 빠른 박자로 하는 찬송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야엔 지나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 같다.

단군상을 파괴하는 개신교 신자들의 행위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엔 이런 광신도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그러한 단군상이 학교에 설치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교계는 정부에 적절한 탄원을 올려 이 문제를 정책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단군이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 의미 중엔 다양한 상징이 숨겨져 있지만, 특정종교의 신앙의 대상인 단군상을 학교의 교정에 설립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면이 없지 않다. 만약에 학교의 교정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세운다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많은 반대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단군상 파괴 외에 장승 불 지르기, 사찰 방화, 불상 파괴 등의 극단의 종교 배타주의적인 행위가 비기독교인에게 비춰지는 인상이 무엇인지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 기독교에 대한 열렬한 신앙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파괴의 행위가 기독교의 선교에 유익이 되는지,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에 해가 되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신교 신자가 갖는 신앙이 어떠한지 간에 불상이나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안을 보다 진지하게 다룰 것을 기대한다. 단군상 파괴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개신교에 득이 된 것이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공개적 반감이 노골화 되어졌다. 한국의 가톨릭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던 바, 우리는 그러한 가톨릭의 자세에 대해 한 번 성찰해보아야 한다. 물론 단군상이 학교에 설치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그러한 정책은 반대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사안에 대한 개신교의 일차원적 대처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보다 의견

31) 김만기, 『이미지 문화 커뮤니케이션』, 15.

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

2) 십자군(Crusade) 이미지

다음의 이미지는 십자군 이미지다.³²⁾ 십자군 이미지는 2007년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단기선교사 피랍사건을 계기로 증폭된 적이 있다. 한국 개신교의 강압적인 선교는 선교 자체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피선교지의 문화와 그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들이 많았다. 오늘에 있어 한국교회는 이전의 공격적인 선교와 전도로서의 십자군 이미지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강요적이며 공격적인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인터넷 상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가톨릭과 불교에 대해서는 이런 노골적 비난은 하지 않는다. 특히 개신교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개신교의 교회 구조에 연관되어 있는 면이 많다. 가톨릭의 경우엔 성당을 교구청의 기획에 따라 설립하는 반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개신교에 있어서는 각각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설립할 경우 개척을 위한 많은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많은 빚을 지고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재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러한 재정적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전도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개신교의 교회개척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노회 및 총회가 교회의 개척을 주도하든지, 아니면 중대형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더 깊은 고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강요라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전도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려는 입장의 사람들에게겐, 그러한 적극성이 자신에 대한 관심어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전도를 받고도 받아들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겐 귀찮은 강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행동임에도, 이와 같이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세련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초당 이미지

반지성적인 초당 이미지도 문제이다. 기독교의 반지성주의가 줄곧 비판받아 왔다. 위의 광신도 이미지도 이러한 반지성주의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한국 개신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 초당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약장사 이미지, 번잡한 지하철 등에서의 몰지각한 전도 양태들, 기복신앙의 강조, 다미선교회와 같은 종말론에 대한 광신, 대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나이브한 발언들, 당회장들의 지나친 권위의식, 헌금에 대한 강조, 기도원에서 야기된 비상식적인 사건들, 군소 신학교의 난립에 따른 목회자의 자질 저하문제 등이 이런 반지성주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에서는 통용되는 일들이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해 철저히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유와 복됨이 기독교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직설적인 강조가 교회의 이미지를 초당의 이미지로 격하시킬 우려가 많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2) http://cafe.naver.com/pup2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0

4) 개독교 이미지

인터넷 사전인 위키백과는 '개독교'이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독교'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 접두사인 '개'와 '기독교'를 합쳐서, 즉 기독교를 비하하여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기독교, 기독교인(개신교·천주교인)을 비판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³³⁾

우리는 한국의 개신교가 교회 밖의 시민들에 의해 '개독교'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기독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의미가 당연한 구호이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가는 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로서는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과격할 전도구호를 노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것을 위하여 교회의 문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짝퉁 이미지

지난 정권 시절 기독교와 연관된 여러 비리들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기독교와 연관되어 발생한 몇몇 이단들이 소개되면서, 당시 기독교가 그러한 이단과 같은 인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주게 되었다. 특히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원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뭔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게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는 정통적인 고등종교와는 거리가 있는 짝퉁 영성과 훈육을 하는 부족한 종교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독교의 짝퉁 종교로서의 이미지는 기복신앙의 이미지와도 관련된다. 병을 고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 같이, 기독교의 진리를 축소시키는 설교들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기독교의 부족한 이미지들이 증폭되면서, 우리 자신이 비판하였던 사이비 같은 인상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지되게 되었던 것이다.

33) "반기독교주의," 위키백과.

제 3 부

6.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교회의 방안들

1)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원들에 대한 분석을 정리함

사회에서 형성된 교회의 이미지는 향후 사람들의 종교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파악된 비판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원인들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있어 그것들의 핵심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 종교 지도자들의 이미지에 연관된 문제: 도덕성, 종교적 전문성, 지적 능력, 영적 훈련 등의 문제
- 신자들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 도덕성, 지적 능력, 광신도 이미지 탈피, 기복신앙 등의 문제
- 선교방식에서의 문제: 예의를 갖춘 선교, 문화친화적 선교로서의 문제
- 신앙의 내용과 교리에서의 문제: 타종교에 대한 관용-타종교에 대한 정복적 자세의 탈피, 반지성주의적 교리의 극복, 기복적 신앙의 탈피, 교리적인 만용의 탈피 등의 문제
- 교회의 사회적 책임: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종교임을 강조, 사회적 봉사, 공익성 강조, 정치적인 중립성의 견지, 공공 신학적 책임 등의 문제
- 기타 문제: 물량주의의 탈피, 재정운용의 건전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권위주의의 극복 등의 문제

필자는 위의 내용을 세 가지의 주제로 모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성의 제고**: 사회적 봉사, 공익성, 물량주의의 탈피, 재정운영의 건전성 등도 사회윤리적인 측면으로 도덕성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종교적 포용성의 강화**: 자기 종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되, 타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해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 개방성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지적 수준의 고양**: 충분히 지적으로 성찰되지 않은 맹신적 종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기독교 밖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판은 대개, 위의 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의 내용만이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 실추의 모든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 실추의 원인들 중엔 일종의 홍보의 부재의 문제도 있다.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통하지 않으려는 종교로 생각되는 것이 문제이다. 교회 안의 문제에만 착목하지 않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판의 문제에 더 예민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개신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과 나누려는 노력하여야 한다. 전도를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방송 등도 필요하지만, 동시 교회의 하는 중요한 일들을 교회 밖의 세상에 여러 매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2)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

이상에서 우리는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방안을 간추리게 되었다. 이제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검토하려 한다.

첫째,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 및 사회봉사의 실천성 제고: 목회자 윤리규정을 만들어 보급함, 칭의와 함께 성화의 문제를 강조, 신자들의 생활교육을 강화, 오늘의 시대에 절실한 환경윤리와 생명윤리 및 경제윤리에 대한 교육 등 사회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교회의 대사회봉사를 체계화하고 강화함, 교회당 건축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음,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에의 훈련, 교회 재정의 투명성 강화

둘째, 종교적 포용성 및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 강화: 강압적이며 무례한 선교의 지양, 종교적 맹신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 검토함, 교인끼리 지나치게 단합하여 타종교인들을 배제시키는 일들을 삼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광신적 모습으로 비취질 수 있는 행위들을 삼감, 교회 밖을 향해 열린 교회를 지향,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회의 활동들을 소개함,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종교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함,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한 교회의 메시지를 마련함

셋째, 지적 수준의 고양: 상식의 수준에서 교회의 일들을 다시 반성하여 봄, 신학연구 및 사회윤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문화 친화적 종교로 성장,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의견표명,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상을 주지 않음

7.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고양하여 새로운 교회 이미지를 형성함

1) 위장된 이미지와 진정한 이미지

이 글은 한국개신교의 이미지 제고에 관한 본 글은 위장된 개신교의 이미지를 만들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니다. 위장되고 날조된 교회 이미지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핵심은 외식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실제적 행위와 본질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얼마 전 많은 사람을 살해한 강호순이라는 범죄자가 마스크를 시끄럽게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형이라, 그가 접근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한다. 강호순은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였던 것이다. 많은 이단종교들이 그들의 거짓 이미지를 살포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교회의 이미지가 거짓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교회가 진정 사람들을 구원하며 행복하게 하는 기관임을 확인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성에 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울 때 교회의 이미지가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의 분열의 예를, 성경은 사데교회를 통해 언급한다.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1) 사데교회는 외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았으나, 정작은 죽은 교회였음을 언급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외형으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엔 죽어 부패한 교회들이 없지 않다. 성경은 이와 같이 외형의 이미지가 그것의 내면적 이미지와 분리된 교회들을 고발한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교회

의 진정한 내적인 본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적인 이미지로 발현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본질이 알맞게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하여 전달되는 적합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진정한 이미지를 위해 먼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성장의 모범을 보인 교회들이 미국에서 생겨났다. 새들백 교회(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와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가 그들 중 대표적인 교회일 것이다. 새들백이나 윌로우크릭 교회들은 교회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복음전도 또는 말씀 선포(kerygma), 교육(didache), 교제(koinonia), 봉사(diakonia), 예배(leiturgia) 또는 성례전이다. 교회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일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능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크릭 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또한 요청된다. 교회의 기능성은 교회의 본질성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기능적 목적에 앞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은유(메타포)들을 살피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여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교회를 상징하는 메타포들이 있다.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 보기도 하고, 방주나 배, 신자의 어머니, 반석,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등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의 메타포들이 있지만, 그 중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상징일 것이다.³⁴⁾ 그리스도의 몸이란 상징은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에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교회의 다섯 가지의 기능적 목적과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잘 구현될 때 발현되는 것이다.

2) 진정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실추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방향성은 정해졌다.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 및 사회봉사의 실천성 제고, 종교적 포용성 및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능력 강화, 지적 수준의 고양이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미지 제고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선,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이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들과 긍정적 이미지들을 분석한 다음, 성경의 중심 이미지에 근거하여 부정적 이미지는 상쇄하고, 긍정적 이미지는 강화시키는 과정이 요청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나 목회의 이미지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그 이미지들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내용에 연속된 것이어야 한다.³⁵⁾ 새로운 이미지 형성의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이미지=기본이 되는 성경의 이미지+(현재의 긍정적 이미지-현재의 부정적 이미지)×실추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향성[도덕성과 사회봉사, 종교적 포용성과 소통능력 강화, 지적 수준 고양]

34)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174-175.

35)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Images of Christian Ministry*, 31-32.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그것은 일단 성경 및 교회전통이 언급하는 것과의 정합성이 요긴하다. 다음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재해석된 새로운 이미지가 기존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미지는 기존의 긍정적 이미지는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는 상쇄함을 통해 산출된다. 새로 산출된 이미지는 교회의 다섯 가지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위되어야 하며, 동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교회라는 메타포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목회자 이미지로서의 구도자임과 동시 봉사자 이미지는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에 있어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는 이미지임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³⁶⁾

3)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

(1) 목회자 이미지의 제고

<표2> 목회자 이미지 분석

구분	설명
성경 속의 목회자 이미지	선한 목자, 제자, 사도, 주의 종, 예언자, 전도자 이미지
부정적 목회자 이미지	CEO형 이미지, 정치9단 이미지, 약장사형 이미지, 제비족형 이미지
긍정적 목회자 이미지	사회개혁자 이미지(박형규 목사), 밥 퍼 이미지(최일도, 감자탕교회 조현삼 목사), 치병과 긍정의 힘(조용기, 김삼환 목사), ³⁷⁾ 교회개혁자 이미지(김동호 목사), 제자 삼는 교사 이미지(옥한흠 목사), 사회봉사자 이미지(손인웅 목사), 군사부 이미지(?)
바람직한 미래 목회자 이미지(한경직 목사)	구도자 이미지+사회봉사자 이미지+(섬김의 리더십으로서의 종의 이미지+교회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2) 신자 이미지 제고

<표3> 신자 이미지 분석

구분	설명
성경 속의 신자 이미지	십자가 군병, 신자, 제자(추종자, follower),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선민), 알곡
부정적 신자 이미지	광신자 이미지(꼴통 이미지, 공격적 선교), 초딩 이미지(지적 열세, 나약, 남을 보지 못함, 반지성주의), 욕심꾸러기 이미지(기복신앙)
긍정적 신자 이미지	중산층 이미지(상대적으로), 예능인 이미지(연예계와 예술계에 많은 신자 분포), 근대인 이미지
바람직한 미래 신자 이미지	순례자 이미지+도덕성을 기반으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빛과 소금 이미지

36) 교회의 이미지 등은 하루아침에 고정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든 부정적인 이미지도든, 고정되는 과정은 비슷하다. 먼저 교회가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나름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말과 행동들을 통해 개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형성된다. 그러한 개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사회 전반의 교회에 대한 평가 및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교회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 의해 다시 확인된다. 기존의 만들어진 이미지가 오늘의 교회의 실제 모습과 일치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런 이미지들은 더욱 강화된다. 그렇게 고정된 이미지들에 의해 교회가 다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한 번 고정된 교회의 이미지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간해서 변경되기가 쉽지 않다.

37) 안석모, 『이야기 목회, 이미지 영상: 해석학적 목회론』, 133.

(3) 선교방식 이미지 제고

<표4> 선교방식 이미지 분석

구분	설명
성경 속의 선교방식 이미지	순례 이미지(길, 거류민, 영주권자), 새 질서 이미지(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간성), 민족의식 이미지(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목자와 양떼), 변혁 이미지(소금과 빛, 영적인 집, 증거 공동체) ³⁸⁾
부정적 선교방식 이미지	16세기 이후 제국주의 이미지, 어머니와 딸(문명화) 이미지, 최근 경영학적 개념 채용에 따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이미지(선교가 상업적 판매 캠페인과 비슷), 십자군 이미지(Christian crusade) ³⁹⁾
긍정적 선교방식 이미지	좋은 소식의 선포, 친구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나눔(베드로 안드레의 관계), 복음의 해석(문화 속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목양, 건물을 세움, 씨를 뿌림-이러한 내용들을 총괄하여, 선교는 인간과 사회의 새 창조(new creation)라 할 수 있다. ⁴⁰⁾
바람직한 미래 선교방식 이미지	십자가의 길에 따라⁴¹⁾ 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합하는 선교 이미지 +(전 창조의 변혁)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침체를 막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 된다. 교회의 성장도 일종의 삶의 사이클과 같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노쇠하여 정체기를 맞게 되고 더 지나면 교회의 수명이 다하여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늙고 죽지만 후손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교회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같은 교회의 생명 사이클의 문제를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다 알다시피 근래 성장하였던 교회들을 대부분 개척된 교회들이다.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은누리교회, 높은뜻승의교회, 삼일교회 등 요즈음 부흥을 거듭하는 교회들은 대다수 개척된 교회들이다. 또한 한국의 오래된 교회들 중 새로운 성장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음을 보면, 오래된 교회들은 성장의 동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교회개혁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오늘에 있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예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전 시대는 천막을 쳐서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성장하는 때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와 같지 않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이에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전의 교회개혁 모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회나 개교회가 재정을 투입하여 교회를 전략적으로 개척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 같다. 기존 교회와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네트워크 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새로운 교회들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는 교회가 재정과 인력과 목회노하우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교회를 네 개로 쪼개어 분립 개척한 높은뜻승의교회의 모델도 이 같은 대안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8) John Driver, *Images of the Church in Mission* (Scottsdale: Herald Press, 1997).
 39) John Driver, *Images of the Church in Mission*, 19-21. 이와 같은 선교방식들은 파트너십으로서의 선교개념을 무시한 강압적인 선교인 것이다.
 40) Stanlet H. Skreslet, *Picturing Christian Witness: New Testament Images of Disciples in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2006).
 김경재 교수는 선교방식을 파종(씨 뿌림), 합류, 발효(누룩), 접목(접붙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41) John Driver, *Images of the Church in Mission*, 221. "Mission is cruciform(계 1:5, 3:14, 마 10:42-45)."

물론 기존의 오래 된 교회들도 성장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장소를 옮긴다든지, 새로운 교회건축을 한다든지, 목회지도력을 개선한다든지, 교회구성원을 교체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략적 기획을 세워 목회방향을 쇄신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침체하기 전, 가장 왕성한 활력을 가질 때,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일단 교회가 침체의 시기를 맞게 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개척의 방식과 선교의 방식에서 상당한 전환을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농경 사회의 전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모형을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강요하는 강압적 전도를 통해 교회를 멤버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여러 감언이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하려는 시도들은 통하지 않는 때가 되었다. 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여,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사회를 향해 나아갈 때, 선교의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리라 생각한다. 보다 주민 친화적이며 문화 친화적인 성경중심의 선교전략을 개발하여, 오늘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이다.

(4)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

<표5>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 분석

구분	설명
성경 속의 사회적 역할 이미지	왕, 예언자, 제사장 이미지
부정적 사회적 역할 이미지	수구자 이미지(뉴라이트 운동, 군부독재 시 조찬기도회 모임, 수구적인 가두집회들, 반민족적 교회) 기타 기독교인 관료들의 부패(탐관오리 이미지), 기독교 학교에서의 신앙 강요 활동(십자군 이미지와 연결됨) 비고: 교회의 부동산 투기(?),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 기독교정당의 설립 ⁴²⁾
긍정적 사회적 역할 이미지	이주민들의 보호처-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 이미지(서경석, 박천웅 목사, 김수환 이미지/ 비고: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에 앞장, 교회의 다각적 사회봉사(사회봉사관의 건립, 한국교회봉사단 등의 활동),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활동(기윤실, 기환연 등), 기독교병원의 설립(다일교회 천사병원 등),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강조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수행 이미지	영성과 사회참여를 통합하는 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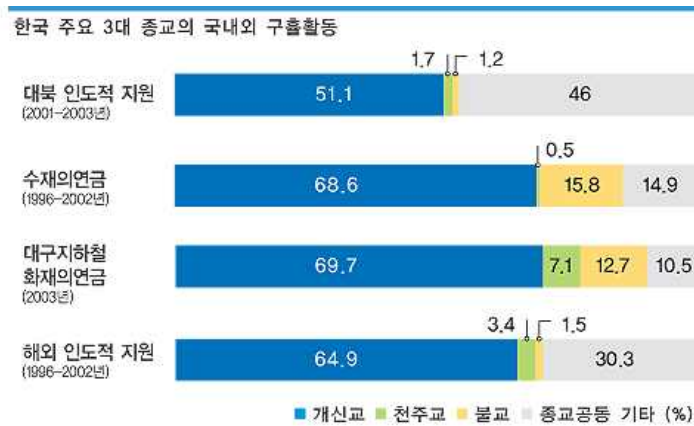
한국개신교회가 나름대로의 사회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만큼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논의들이 있다. 김홍권의 책, 『좋은 종교 좋은 사회』에 수록되어 있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대로, 개신교는 불교보다 적은 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구휼활동 실적에서 반 이상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⁴³⁾ 이와 같이 많은 부분의 일들을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

42) 일종의 나이브한 승리주의로 비판받음.

43) 김홍권, 『좋은 종교 좋은 사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김홍권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장이 저술한 이 책에는 각 종교들의 사회봉사 상황에 대한 여러 통계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수재의연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연금, 해외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종교단체들의 활약상은 두드러지며, 이중 개신교의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종교인구가 2005년 통계청 조사기준으로 불교가 전체인구의 22.8%(1072만여 명), 개신교가 18.3%(861만여 명), 천주교가 10.9%(514만여 명)인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드러난다. 이중 개신교는 금액 면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3년간 6985만 6천 달러, 수재의연금에 7년간 95억여 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연금에 21억 5천만여원, 해외 인도적 지원에도 7년간 1330억여 원을 쏟아 부는 등 사회복지와 소외된 이웃돕기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구하고,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개신교의 홍보부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제일 인색한 종교로 생각하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표6> 한국 3대 종교 별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

한국의 개신교회는 홍보면에 있어, 다른 종교들에 비해 그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을 선포한 이래, 줄곧 미디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고조하여 왔다.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가톨릭의 관심은 이후 사목훈령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 1972), “새로운 시대”(Aetatis Novae, 1992)등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톨릭은 매년 5월 31일을 “세계 홍보의 날”(the World Communication Day)로 정하여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청 내에 교황청 매스컴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PR의 문제를 중시하는 여러 기구들을 결성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가톨릭은 홍보 면에서 개신교보다 전략적인 우위에 있다.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교회가 수행한 사회봉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 리로다』, 최일도 목사의 『밥 퍼』, 조현삼 목사의 목회내용을 소개한 『감자탕교회 이야기』 등은 이런 홍보의 좋은 선례가 된다. 만약에 이런 책들이 발간되지 않았다면, 그 목회자들의 훌륭한 봉사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개신교 내에선 그와 비슷한 사회봉사의 일을 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효과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을 홍보하지 못함에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홍보의 효율화를 위해 개신교도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총회 내에 매스컴위원회 등을 두어 대외홍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단 내의 언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이 요긴하다고 생각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복음 6:3)는 말씀에 따라 개신교도

종교단체들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는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을 2005년 기준으로 전체 906개소 중 약 87%인 768개소를 설립했고, 약 6만 4천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중 개신교는 장애인 131개소 1만 3천여 명, 아동 200개소 1만 7천여 명, 노인 175개소 1만 2천여 명의 규모로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3월 14일).

들은 그간 은밀한 봉사를 해왔으나, 사회는 그런 은밀한 봉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간 한국교회의 적절한 홍보를 위한 전략을 갖지 못했다. 사회를 위해 은밀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홍보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선교와 전도는 어차피 기독교의 진리와 강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선포하며 전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것이며 타당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는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기독교의 홍보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늘의 사회에서 개신교가 사람들로 부터 지탄거리가 된다면, 그러한 선교는 성공적이기 힘들 것이다. 반면 한국의 개신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우리의 선교 현실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선교와 전도의 성공여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효과적인 홍보와 연관되어 있다. 매스미디어나 기타 다른 여러 매체들에 의한 효율적인 홍보는 우리의 선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는 효과적 홍보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5) 교회 이미지 제고

<표7> 교회 이미지에 대한 분석

구분	설명
성경 속의 교회 이미지	마가: 대안적 공동체, 마태: 정의의 가정(household), 누가: 왕국의 징표, 바울: 화해의 공동체, 베드로전서: 노숙자들을 위한 집, 계시록: 저항의 공동체 ⁴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창조, 신앙 안에서의 교제(fellowship), 그리스도의 몸 ⁴⁵⁾
부정적 교회 이미지	연애당(성추행, 결혼하러 간다.), 예수당(당파적 이미지, 전통문화의 파괴, 반민족적), 노인당, 교회지상주의, 물량주의적 기업 이미지, 단단계 조직 이미지
긍정적 교회 이미지	사회화의 장, 여성들의 활동 공간, 쉼터, 봉사의 중심, 거룩한 예배당/ 동정심이 많은 자들의 공동체(상처받은 치유자), 종으로서의 교회(씨번트 리더십), 예언적 공동체, 무지개교회(노예가 된 해방자), 탈교파주의적 교회(실천적 신학자들이 중심이 됨), 지구촌(공적 목회, public ministry) ⁴⁶⁾
바람직한 미래교회 이미지	그리고 내적으로 유기체적 함 몸을 이룰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려있어 유기체적 구조를 갖는 교회 이미지 네트워크 교회(내적으로 팀 미니스트리-높은뜻송의교회), 이머징 교회(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는 교회, 문화적 교회, 지성적 교회), 녹색교회(자연과의 연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곳+새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곳: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곳 ⁴⁷⁾ 선각의 단체,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교회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의 이미지는 '개화당' 이미지였으나, 31운동에 즈음하여 '애국당'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 625 이후에 전후 '구호물품센터'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1960년 대엔 '잘 살아 보세!'라는 사회의 지향점과 함께 '축복'이 있는 곳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이후 민주화운동 시엔 '저항'의 이미지를, 그리고 요즘엔 '슈퍼마켓'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교회 이미지

44) Keith A. Russell, *In Search of the Church: New Testament Images for Tomorrow's Congregations* (New York: An Alban Institute Publication, 1994).

45) Paul Minear, *Images of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목차 참조.

46)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Images of Christian Ministry*, 18ff.

47) Keith A. Russell, *In Search of the Church*, 96.

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근의 교회 이미지에 이전의 선각의 단체라는 이미지와 고난 받는 종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었다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⁴⁸⁾ 이전의 바람직했던 이미지들을 살려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요약정리: 핵심 이미지로서의 십자가 이미지

우리는 앞에서 교회와 그에 상응하는 선교 및 교회구성원들의 미래의 바람직한 이미지들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구도자 및 사회봉사자 이미지를 겸비한 목회자 이미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초연한 순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도덕성과 정의감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신자 이미지, 십자가의 길에 따라 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합하는 선교 이미지, 영성과 사회참여를 통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미지, 그리고 내적으로 유기체적 한 몸을 이룰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려있어 유기체적 구조를 갖는 교회 이미지 등 다섯 가지의 이미지에 대해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미래의 교회 이미지들을 정리하며, 우리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곧 기독교의 고유한 영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 소통이 원활한 교회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⁴⁹⁾ 일면 보수적이면서도 한 편으론 진보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영적으로 뜨거우면서도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곧 사회변혁을 위한 예언적 공동체가 되면서도, 동시 사람의 영을 구원하여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영성과 사회변혁의 두 측면이 21세기 신학의 향배임을 확실하게 밝힌 신학자로서 우리는 하비 콕스(Harvey Cox)를 들 수 있다. 콕스는 그의 책, 『영성 음악 여성』⁵⁰⁾의 마지막 장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신학의 기준을 자유와 해방, 사회변혁, 성령의 능력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서 찾았다. 그는 '성령운동과 사회적 해방의 운동'이 결합하는 신학을 21세기의 미래적 신학의 모습으로 제기하였다.⁵¹⁾ 어떤 의미에선 영성과 윤리가 결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운동이 사회적 실천과 윤리적 행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하나의 신비체험으로 환원될 때, 그 체험은 사이버적 종교체험이 되는 것임을 그는 강조한 것이다.⁵²⁾

이 같은 서로 상반된 두 차원의 결합이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 해석되게 된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깊이를 보여 주는 상징이며, 세상을 향한 희생적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가 그간 가장 소중히 해왔던 이미지인 십자가의 이미

48) 김철, "교회 이미지 개발과 개선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맥코믹신학교 목회학박사 학위 논문, 2006), 32-33.

49) "앞으로 21세기 목회자 이미지는 정의와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권두 좌담: 교회 참 이미지는 영성에서," 『목회와 신학』 (1997. 10.), 39에서 인용함.

50) 하비 콕스, 『영성 음악 여성』, 유지황 역 (서울: 동연, 1996).

51) 하비 콕스, 『영성 음악 여성』, 436-437.

52) 하비 콕스, 『영성 음악 여성』, 411-439.

스푹(John Shelby Spong) 교수는 "이머징 교회"라는 그의 논문에서, 이머징 교회가 미래에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는 50년대의 미국교회가 열중하였던 교회 교육(education)과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60년대와 같이 세상의 아픔(pain)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70년대와 같이 거룩(the holy)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곧 영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보는 대로, 앞으로의 교회 이미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영성과 사회변혁의 양면성을 갖춘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John Shelby Spong, "The Emerging Church: A New Form for a New Era," *Christian Century* 96, no. 1 (Jan., 1979), 16에서 참조함.

지이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십자가 상징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세련된 새로운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상징만큼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해줄 수 있는 이미지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⁵³⁾ 우리가 오늘에 시대에 다시 상기하고 기릴 이미지는 십자가 이미지로서, 우리는 그 십자가 상징이 내포하는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이미지가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와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 이미지인 십자가의 도에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다. 양창삼 교수는 교회 이미지 갱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리스도보다 개인을 드러내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 다 유명해지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미지화는 그리스도화이지 개인화나 조직화가 아니다. 교회의 이미지나 이미지 목회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해야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⁵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길에 대한 선포와 이웃 사랑으로서의 섬김의 길을 제시한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뿐 아니라, 하나님과 전피조물의 화해를 선포함으로써, 전피조물의 새로운 변혁을 가능케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고 소통하며, 이웃과의 분리를 연결하여 서로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됨으로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가 연합을 이루게 한다. 아울러 십자가는 고난이 없는 사랑과 봉사가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기독교인의 영성의 길을 제시하며, 섬김의 제자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스스로를 자제하고 희생하여 남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었던 목회자 모델(model)로 어느 목회자를 거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 목회자로서 호남권 광주의 최홍종 목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다일교회 최일도 목사 등의 역할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교회로서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용정의 명동교회, 광염교회, 영동교회(고신측), 높은뜻승의교회 등의 교회 이미지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이 보다 더 큰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폭 넓은 선교의 장을 열었으며, 제자훈련 등을 체계화하여 평신도의 역량을 강화한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교회들을 우리는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보다 밝게 변화시킨 교회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53)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 심어줄 교회의 이미지란 십자가 외에 달리 제시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정훈택, "예수님이 요청하신 교회 이미지," 「목회와 신학」 (1997. 10.), 51.

54) 양창삼, "왜 이미지 목회를 말하는가," 「목회와 신학」 (1997. 10.), 48.

제III부

8.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회와 신자의 임파워먼트 전략

1) 교회의 임파워먼트 전략

필자는 이상에서 교회가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는 바, 그 내용들이 대개 규범적인 내용이 된 것 같다. 이에 있어 우리가 강조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이미지 강화의 노력들이 율법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일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교회가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포용적이며 보다 지성적이고 보다 소통적이기 위해 강화할 근원적인 역량을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회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요청된다.

'임파워먼트'는 우리말로 "역량강화"로 번역되는데, 그 단어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이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힘을 증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종 개인이나 공동체의 능력에 대한 강화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⁵⁵⁾ 이에 있어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며, 이 이미지의 저변에서 교회의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임파워먼트의 전략이 필요하다.

2) 사랑의 역량강화 전략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창출해야 하는 이미지의 핵심은 **깊은 영성의 구도자의 이미지와 강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사랑의 사회봉사 이미지**임을 앞에서 정리한 바 있다.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영성을 수련하는 자로서의 구도자 이미지와 이웃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종의 이미지가 우리가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미지는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과 연결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의 기독교적 사랑의 형성과 강화가 미래 한국교회 이미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⁵⁶⁾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따른 이웃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미지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리 만무하다. 사랑의 진실만이 오늘 개신교의 이미지 실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밝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같다고 하였다. 아무리 교회의 잘한 일들을 세상에 선전하다고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런 행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진정한 사랑만이 한국 개신교의 신뢰회복의 길이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우

55) "empowermen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56)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강하게 실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권두 좌담: 교회 참 이미지는 영성에서," 「목회와 신학」 (1997. 10.), 35에서 인용함.

리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의사소통의 제일 수단이며, 도덕성의 근원이고, 남을 포용하고 감싸게 하며, 우리를 진정한 지체로 이끌며, 사회를 변혁하는 힘인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들로 하여금 남을 진정되게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중생함으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선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이 없이 입으로만 겉보기의 행동으로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랑은 하나의 기만이 된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변함이 없이, 우리는 남에 대한 진정된 사랑에 이를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마음의 깊은 변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점에 이르게 된다. 무엇이 우리의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과 영성훈련을 통해서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3) 사랑의 역량강화와 기독교 영성

미래를 위한 기독교적 이미지를 위해 **교회가 강화하여야 할 핵심은, 십자가 영성과 종으로서의 봉사**로 무장된 기독교적 사랑을 갖추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현이다.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경건과 이웃 사랑으로서의 봉사를 기독교의 사랑은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영성은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으로서의 이중적인 영성의 모습을 가진다. 이에 있어 수직적 영성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의 측면을 말하며, 수평적 영성이란 이웃 사랑의 측면을 언급한다. 이 같은 기독교 영성의 수직성과 수평성의 통전성을 우리는 현대의 주요한 영성신학자들인 헨리 나웬과 리처드 포스터의 영성사상에서 확인하게 된다.⁵⁷⁾

오늘날의 "영성훈련" 문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주요한 책이 있다. 나웬의 1975년에 출간된 『영적 발돋움』⁵⁸⁾과 포스터(Richard Foster)의 1978년의 책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⁵⁹⁾이다. 이 두 책들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널리 읽혀졌었다. 나웬은 앞의 책에서, 영성훈련의 모습을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에 비유하였다. 나무는 줄기로 위를 향해 성장하며, 가지로 옆으로 성장하고, 뿌리를 통하여 땅 속으로 뻗어나간다. 이러한 나무의 성장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세 방향의 운동을 포괄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위를 향한 성장,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서의 옆으로의 성장, 나와 자아와의 관계로서의 깊이로서의 성장의 세 차원이다.

포스터도 위의 책에서 세 가지의 훈련에 대해 말한다. 그의 책,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3부 각각의 제목은 '내면의 훈련,' '외면의 훈련,' 그리고 '공동체훈련'이다. 여기에서 '내면의 훈련'은 개인훈련으로, '외면의 훈련'은 관계훈련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동체훈련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책은 개인훈련, 관계훈련, 공동체 훈련으로서의 영성훈련의 세 가지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훈련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비롯되는 훈련이며, 관계훈련이란 이웃과의 관계성에 따른 훈련이고, 공동체 훈련이란 예배의식 및 교회공동체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훈련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두 책의 구성에서, 우리는 영성훈련의 의미를 간추리게 된다. 기독교의 영성훈련은 나와 하나님과 이웃의 어우러짐 가운데에서 수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웃 사랑과 이웃 사랑

57) 필자의 책,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58) 헨리 나웬, 『영적 발돋움』 (서울: 두란노, 1999).

59) 리처드 포스터,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서울: 보이스사, 1982).

은 서로 나누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궁극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오늘의 영성신학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두 권의 책을 통하여, 기독교 영성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자아와의 만남의 세 구조이다. 포스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인훈련으로, 이웃과의 만남을 관계훈련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자신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며, 이런 이웃과의 바른 만남에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사회 및 역사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자아와의 심리적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생태적 관계가 기독교 영성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근본 된 진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껍데기의 종교성만 가지고 표류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의 역량강화는 교회의 근본진리에 충실함을 통해 가능해진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창출해야 하는 이미지의 핵심은 깊은 영성의 구도자의 이미지와 강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사랑의 사회봉사 이미지이다. 이 같은 진정한 이미지를 오늘의 우리 한국개신교가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슬로건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곧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영성적 훈련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영성훈련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오늘과 같은 개신교의 이미지 실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⁶⁰⁾ "교회의 이미지 고양은 교회의 영성회복이자 세상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전략적 위치정립입니다."⁶¹⁾

4) 영성훈련을 통한 교회의 역량강화

이제 우리 이야기의 초점은 가장 효과적인 영성훈련의 방법을 찾는 데에 이른 것 같다. 영성훈련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욕의 욕심과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욕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린도전서 2:14).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는 영적 성장의 네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⁶²⁾

먼저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첫 단계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얽매인 상태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는 그를 믿을 때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다(로마서 6:6).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죄의 종 된 상태에 그대로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60)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영성이 회복되어야 이미지를 끌고 갈 힘을 가지고 갱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권두 좌담: 교회 참 이미지는 영성에서," 『목회와 신학』 (1997. 10.), 40에서 인용함.

61) 양창삼, "왜 이미지 목회를 말하는가," 『목회와 신학』 (1997. 10.), 44.

62) 아래의 영성훈련을 위한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책, 『예배와 인간행동』 (서울: 성광문화사, 1996), 제16장을 참조하였다.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종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의의 종 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곧 의를 행치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성경은 말한다(로마서 6:15-23).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법은 우리를 의의 세계로 끌고 가나, 또 다른 육의 법이 있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면은 변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성경은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으로서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두 번째의 단계는 순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고린도전서 7:29-31).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인 양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오늘에 있는 것이 다 이전에 있던 것이다. 독특한 행복과 쾌락을 찾으려는 사람의 뒤돌아 앉은 허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엇을 손해 본 것같이 여기며, 쟁취하려고 아우성치는 것에 의해 이 사회는 결코 변혁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잘 타는 사람은 결코 고삐를 세계 잡아 다니지 않는다.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렇다. 생명은 풀어줌에 있는 것이지 꼭 쥐려고 한다하여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쳐가는 것같이 살라고 하신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기쁘다고 하여 너무 행복해 하지 말아야 한다. 다 덧없는 일이다. 좀 모자란 것 같은 것이 좋다. 사랑도 지나치면 헤어짐이 어렵다.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하여 이삿짐을 다 풀지 말라는 충고가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바르다는 것이다. 인생살이도 그와 같다. 항상 저 나라로 건너갈 준비를 하며 정리하며 가야 한다. 수습하지도 못할 일을 이리저리 벌려 놓고, 욕심으로 배를 불리며 사는 것도 헛되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 12:16-21).

세 번째의 단계는 자기부정의 단계이다. 욕심을 줄여 나가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단계에까지 가야 된다. “누구든지 자시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린도전서 10:24). 사랑이란 남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8:12-13).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이나, 사랑 때문에 남의 종이 된다고 말하였다(고린도전서 9:19).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인간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여야 한다(고린도전서 10:31-33).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향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부정의 삶을 말한 후, 바울은 네 번째의 단계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

게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2:12-13) 죄와 구별된 삶, 순례적인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단계를 거쳐 신자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게 된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며, 남의 기쁨을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후 바울은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의 모습을 13장에서 설명한다. 성령 충만한 삶, 곧 영적인 삶은 사랑의 삶이다. 영의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남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같이 파악한다. 파당적 분쟁은 공동체의 영성의 부정적 지표라면, 사랑의 하나 됨은 긍정적 영성의 지표이다.

모든 인간의 악의 문제는 그가 육적인 삶을 추구함에 있다. 육적인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도 바로 서지 못한다. 이러한 죄악을 벗어나는 길은 영적인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이성과 무관한 신비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린도전서 14:14-15) 이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누스”이다. 그 단어는 마음이란 번역보다는 정신(이성)이라는 번역이 더 명확하다. 곧 방언과 같은 영적인 행위가 이성과 무관하게 행해질 때에는 열광주의가 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열광적인 신비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이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린도전서 14:33).

5) 영성훈련의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예배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순례적인 삶을 사는 것-자기부정의 삶을 사는 것-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의 네 단계가 영성훈련의 과정이다. 회개-순례적 삶-자기부정-성령의 하나 됨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이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회개한 기독교인의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Christian life style)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의 자기부정의 삶 및 순례적 삶을 강조하였다.⁶³⁾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경건(pietas)으로서의 경외심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의 스타일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good works)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칼빈의 논리이다. 칼빈은 그러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의 원천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선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⁶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개신교의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수평적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예배이다. 곧 **예배는 영성훈련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되는 셈이다. 예배와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친교를 이루게 된다.

예배를 말하는 영어 용어에는 세 가지가 있다. ‘worship’(존경, 경배하다)과 ‘liturgy’(희랍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음)와 ‘service’(섬김)이다.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샤하야’이며 다른 하나는 ‘아보다’이다. ‘샤하야’는 엎드린다, 즉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다. 후자는 노동, 일, 봉사를 의미한다. ‘샤하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이며, ‘아보다’를 뜻하는 헬라어는 ‘레이투르기아’이

63) John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vol. I,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Book Three, Chap. VII-VIII.

64) 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머리글(개정판을 발간하며)에서 인용함.

다. '프로스퀴네오'라는 용어는 존경심을 가지고 입 맞춘다는 뜻이다. '레이투르기야'는 공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노동을 말하는 명사인 바, 그것의 동사형인 '레이투르게오'는 '봉사한다', '일한다'라는 뜻을 가진다. 본래 '레이투르기야'는 헬리어 '라오스'와 '에르곤'의 합성어로서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예배에 쓰이는 용어들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경배이다. 다음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섬김의 봉사이다. 예배에는 이상의 두 가지의 요소가 병합되어 있다. 필자는 이 내용을 복종과 섬김이라는 용어로 간추리려 한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인간을 위한 섬김이 예배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것이다. 복종이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없으며, 섬김이 없는 복종 또한 공허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것으로서의 자기부정과 이러한 자기 비움을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 예배의 두 가지 목표이다. 히브리서 13장 15-16절 말씀은 이러한 예배의 양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곧 생활이어야 한다.⁶⁵⁾

6) 예배와 교회생활을 통해 성취되는 교회의 역량강화

프린스턴신학교의 기독교교육 학자 아스머(Richard Osmer)는 몰트만의 저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5중적 직무에 기초하여, 회중의 5가지 크리스토프라시스(Christopraxis)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5중직을 열거하였다. 그 5중적 직무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의거한 것들로서, 예언자(prophet)적 직무, 제사장(priest)적 직무, 왕(king)적 직무로서의 그리스도의 3중직 외에 변모(transfiguration)적 직무와 개방적 친교(open fellowship)의 직무의 두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이 5중적 직무는 교회의 회중들이 수행하여야 할 크리스토프라시스 및 회중의 핵심적 실천들과 연결되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며 다음의 표와 같다.⁶⁶⁾

<표8> 예수 그리스도의 5중직과 회중의 5중적 크리스토프라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5중직	회중의 크리스토프라시스	핵심적 실천들
예언자적 직무	증언(marturia)	설교, 증언, 전도
제사장적 직무	봉사(diakonia)	주의 만찬, 짐 져주기, 사회봉사
왕적 직무	교육(didache)	카테키시스(교리교육), 훈계, 분별
변모적 직무	찬양(doxology)	주일성수, 찬양, 재창조
개방적 친교의 직무	교제(koinonia)	세례, 영적 은사의 확인, 환대

이 같은 그리스도의 5중직은 오늘의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강화하여야 할 요소들을 대부분 포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적 직무와 연관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재창조는 오늘의 타락한 신자와 교회의 이미지 제고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 직무로서의 사회봉사는 개신교

65) 노영상, 『예배와 인간행동』, 제8장을 참조함.

66) 리처드 아스머,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신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35-442.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5중직으로서의 성도들의 크리스토프라시스는 새들백교회나 윌로우클릭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목적(purpose), 곧 교회의 다섯 가지의 기능과 맞물린다.


의 대사회적 평판을 제고하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적 친교의 직무는 교회 밖과의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내로 환대하고 그들과 긴밀한 친교를 하게 할 것이다.

이에 있어 크리스토프락시스의 핵심적 실천의 요소들 중에서, 기독교의 예배의식 중에서 실천되는 것들에 밑줄을 그었다. 나머지의 증언과 전도, 사회봉사, 카테키시스와 훈계, 영적 은사의 확인 등도 예배의 요소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의 예배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핵심적 실천들을 강화하고, 그것이 오늘의 개신교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개신교는 실추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강화하려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기본 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런 예배와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교회의 비본질적인 일은 뒤로 돌리고, 먼저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일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본 되는 목회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돕는 교육이 신학교의 교육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실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일차적인 요구는 종교가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교가 그 나름의 특질을 내세워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7) 마치는 글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 실추 문제로부터 시작한 논문이 여기까지 전개되어 왔다. 그 실추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 이미지의 창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깊이 있는 영성을 갖춘 구도자 이미지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로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관건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깊이를 더하고 이웃 사랑으로서의 실천적 봉사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훈련은 오늘의 영성훈련의 목적으로, 우리는 그 같은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수단으로 예배와 교회생활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된 예배만이 한국 개신교의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교회와 선교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을 통한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개신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서로 간에 화해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 먼 길을 돌아 우리는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무엇이 오늘의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는가를 다시 묻는다. 그 답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할 때 그것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단순한 이 명제 앞에 다시 서야 한다. 



한국교회의 대(對)사회 이미지와 신뢰성
실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미지 제고(提高)
및 교회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방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 02-794-6200

팩스 | 02-790-8585

이메일 | trust@trusti.kr

홈페이지 | www.trusti.kr

